

2022년 제28회 법무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의 분석

1. 각 부분의 출제내용

제28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 총 30문제 중에서 각 부분에 따라 그 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제부분	상총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출제문제수 (총30문제)	7문제	13문제	3문제	5문제	2문제
분포율	23.3%	43.3%	10%	16.7%	6.6%

(1) 상총·상행위편

상총·상행위편은 올해 총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의 7문제에 비교해볼 때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작년과 달리 긴 지문의 판례문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 회사법

올해는 총 13문제가 출제되어 작년의 14문제에 대비하여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부분에서 11문제가 출제되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출제형태에서는 조문 판례조합형과 순수조문형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음이 특징이다.

(3)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의 경우 올해는 총 3문제가 출제되어 작년의 3문제에 대비하여 비슷한 출제비중을 보인다. 출제형태도 조문 판례조합형과 순수조문형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음이 특징이다.

(4) 보험법

보험편에서는 올해는 총 5문제가 출제되어 작년의 4문제와 대비하여 비슷한 출제비중을 보인다. 출제형태로는 4문제 모두 조문 판례혼합형이었고 순수조문형의 문제는 없었다.

(5) 해상법

해상법에는 작년(2문제)과 마찬가지로 총 2문제가 출제되었다.

(6) 항공운송법

항공운송편은 출제되지 않았다.

2. 기출문제의 총평

(1)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와 출제경향

제28회 법무사시험 상법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출제형태는 예년과 비슷하게 조문판례형문제와 조합형이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총 150지문(30문제×5지문) 중 85지문 즉 56.6%이 종래 기출된 지문과 동일, 유사지문으로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회사법 판례의 난이도 상승

작년 회사법의 경우 긴 지문의 판례가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면, 올해는 작년을 제외한 **예년과 유사하게 적당한 길이의 지문판례**가 주류를 이루어 체감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판례의 경우 **최근 1년 내에 나온 최신판례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2019년 이후 최근판례수는 10개임). 그리고 **판례의 요지뿐만 아니라 판례가 실시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는 추세이므로 판례의 심화 학습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개정상법부분(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다중대표소송 등)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3) 보험법의 난이도 상승

보험법의 경우 기본 개념과 조문 및 판례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는데, 지문이 길고 개념이 어려워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전체적인 평가

올해는 회사법에서 많이 출제되었지만, 조문문제도 기존에 많이 출제되어지는 부분의 문제이고, 판례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서를 충분히 숙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적으로는 1년간 기본서와 문제집, 최신판례를 충실히 반복하여 공부한 수험생입장이라면 5~8개 정도 틀렸을 것이라고 본다.

3. 향후 공부방법 및 방향

(1) 기본에 충실하기 - 암기보다는 이해

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양은 방대하고 제법 까다로운 과목이다. 이렇게 공부하기 지저분한 과목일수록 각각의 제도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조문이나, 판례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 무턱대고 암기만 하다가는 양에 치여서 결국에는 살짝 상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서 땀땀하려고 안일함과 타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상법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몇 개 합격기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불변의 fact이다.

(2) 상법 조문과 방법론

상법은 항상 법조문에 기초하여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시험의 문제분석으로도 알 수 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법조문에서 다시 출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제되었던 법조문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학습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법조문에 매달리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수험전략이다. 시험에 나올 만한 주요 법조문 이외의 법조문까지 깡그리 통독하거나 암기하려고 기를 쓸 필요는 없다. 이는 매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전략이며, **‘빈대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따라서 그 법무사, 변사, 회계사, 세무사에 출제된 **최근 조문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사 조문 및 판례(근간)”** 참조할 것]

(3) 양 줄이기 – 슬림한 교재

상법이 방대한 건 사실이지만, 수험서까지 방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상법 기본서와 문제집을 보면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데, 가성비를 고려하면 그렇게 많은 양을 다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본서 700페이지, 문제집 460페이지** 정도면 **법무사 상법은 준비가 충분하다고 본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최선은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을 확실하게 노리는 수험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법무사 상법의 정초(2023년 대비, 700p), 객관식 법무사 상법의 정초(2023년, 450p)”** 참조할 것]

또한 판례의 경우에는 기본서를 숙지하면서 **기출된 판례와 해당 파트의 leading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 암기하면 된다고 본다. 수많은 판례를 전부 암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4. 결론

남은 기간 충실하고 알차게 주어진 과정을 보낸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수험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나태와 피곤을 구분하는 지혜로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말을 전해 주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다.

상법 전임
장원석 변호사